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드론·스마트팜 중심 비전 실현”

민선 8기 2주년 ‘인구 10만 달성’ 비전 청사진 제시
3대 미래전략·7대 성장동력 사업 등 운영 방향 공유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흥 3대 미래전략과 7대 성장동력 사업제시를 제시하며 고흥 인구 10만 달성 비전 실현의 청사진을 밝혔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영민 군수의 주재로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

성과와 앞으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언론인과의 대화순으로 진행됐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2년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기틀을 탄탄히 다지는 시기였다”며 “앞으로 2년은 고흥군 3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고흥군의 비전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2년간 주요 성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27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언론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흥 3대 미래전략과 7대 성장동력 사업제시를 소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선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조성 ▲정부의 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1조원 확보 ▲민선 8기 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고등급(SA) 획득 등을 꼽았다.

공영민 군수는 3대 미래전략으로 고흥군 핵심산업인 ‘우주·드론·UAM, 스마트팜’을 집중 육성하고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드론·UAM 관광 상품화 추진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7대 성장동력은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여건 조성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족하고 따뜻한 복지 제공 ▲지역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중심의 소통·책임행정 구현 ▲함께 누리는 고

흥 문화와 역사, 체육환경 조성 등이다.

고흥군은 3대 미래전략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권역별 공공임대 주택 조성, 광역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대규모 관광시설 확충 등으로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2년 취임사에서 밝힌 고흥의 변화 발전과 ‘오직 고흥,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앞서 제시한 추진 중의 사업은 반드시 완수하고 모든 군정 역량을 한데 모아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화순군이 지난 28일 민선 8기 2주년을 기념하는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구북구 군수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개미산 전망대’ 준공...지역 랜드마크 ‘우뚛’

화순천 꽃강길 분수공연 등시 관람...야경 명소 기대

화순군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개미산 전망대를 준공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심의 야경 명소이자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인 개미산 전망대 준공과 함께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를 개미산 전망대와 화순천 꽃강길 일대에서 개최했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 준공식’은 민선 8기 화순군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화순군의 발전을 약속하는 기념행사로 식전공연, 개미산 전망대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2주년 성과 비전 영상, 구북구 화순군수의 기념사, 시설 관

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망대 시설 관람에 맞춰 화순천 음악분수 공연을 동시에 선보였다.

화순 개미산 전망대는 화순을 한눈에 스포츠센터와 인접한 개미산 정상에 건설된 3층 전망대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화순의 야경과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화순 최적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 2023년 7월 착공을 시작한 이후 12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전망대, 진입도로 등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구북구 군수는 “그동안 이곳 개미산 전망대에 올라 화순천을 바라보면서, 꽃강길 음악분수를 감상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벽찬 감격을 전했다.

구 군수는 이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군민 화합과 열린 군정, 섬김 행정, 문화 화순, 경제 화순을 약속했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화순을 바꾸겠다”며 “전국적 붐을 일으킨 만원 임대 주택,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 화순고 인돌축제, 개미산 전망대에 이어 100년 뒤 화순에서 살고 있을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해수청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운영

세계등대의 날 기념...오동도등대에서 문화행사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30일 “오동도등대에서 7월1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7월1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해양

수산부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등대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해수청은 7월4일부터 6일까지 오동도등대 내 홍보관에 등대체험 부스를 운영해 등명기 불켜기(점·소등) 체험, 등대 모형 종이접기, 색연필을 이용한 예코백에 등대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등대 사진 공모전 및 수상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등대 방문객은 등대 해설사로부터 오동도등대의 역할과 역사적 가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등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한 느낌포 우체통에 우편엽서 작성을 작성하고, 선박 항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이호진 항로표지과장은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뜻 깊은 추억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여름철 해충 집중방역 추진

방역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 강화

구례군은 30일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하절기 주간 집중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 지역, 공동

화장실, 쓰레기장, 빈집 등 방역 취약지의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배관과 배수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집 주변의 풀과 잡초를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국민행동 수칙으로 ▲잠들기 전 방충망 점검하기

▲모기장 사용 생활화하기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옷과 피부 세척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집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하기 등이 있다.

구례군보건소의료원 관계자는 “주민들은 집 앞에 고인 물을 즉시 제거하고 페타이어와 고무통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연휴양림 지정 추진 ‘첫발’

타당성 평가·사전 입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장성군이 축령산 편백숲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첫 단계에 돌입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와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령산 일대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나눴다.

축령산 편백숲은 조립왕 임종국 선생(1915-1987)이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인공 조림지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상록수로 이뤄진 1천150ha 규모의 방대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산림청이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 ‘21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했다.

장성군이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은 서삼면 모암리 군유지로 31ha에 달한다. 산림청 자연휴양림에 지정되면 해당 부지가 하나의 지구로 묶여 치유의 숲 개발 등의 사업 추진 시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또한 각종 공모

·지원사업을 일원화해 신청할 수 있어 향후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조사 용역’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선 휴양림 편입 필지의 ▲수종·수목 분포 ▲산림 기능도 ▲생태 자연도 등 산림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동식물, 기상, 지형 등 자연 환경 현황조사 계획과 자연휴

양림 지정·승인 절차에 대한 질의·답변도 진행됐다.

산림청이 축령산 자연휴양림 지정을 승인하면 장성군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2026년 본격적인 휴양림 조성에 착수하게 된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의 자랑인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타지역 우수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군이 최근 축령산 편백숲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해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 및 사전 입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임업후계자, 신안군 선진지 견학

신안군농기계센터 방문 임업 협동조합 우수사례 청취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담양군협의회는 “최근 보랏빛 1004섬 신안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견학에는 장현필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임업분과 (사)담양군 임업후계자협회의 회장을 비롯해 박상국·지정임 부회장, 정원훈 재무처장, 정영환 사무차장, 김

경수 사무국장 등 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견학은 주용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도지회 부회장의 안내로 신안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각 섬마다 특색을 지닌 꽃과 나무, 정원을 조성한 신안군과 산림조합, 임업 관련 협동조합의 우수사례 및 수익사업

으로 일군 산림경영 노하우를 자세히 청취했다.

또한 방문객이 줄을 잇는 1004섬 분재정원 관람과 안좌 퍼플섬 등을 둘러봤다.

장현필 담양군임업후계자협의회회장은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꽃·나무로 정원을 가꾸는 것에 머물지 않고 협동조합을 통해 경관식물 양묘 수익을 창출하는 신안군의 임업 사례를 배우게 됐다”며 “선진 산림경영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견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군, 득량만에 어미낙지 4천200마리 방류

빨낙지 개체수 증가·어민 소득 증대 기대

장흥군은 “최근 장흥 득량만 연안의 페어구를 수거하고 포란된 어미낙지 약 4천200마리를 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내 통발·복합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 오전부터 연안해역 내 페어구(통발, 로프, 그물 등)를 사전 수거하며 어미낙지를 방류했다.

이 사업은 낙지 금어기(6월21일-7월20일)를 맞아 어미낙지의 안정적인 산란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방류된 어미낙지는 한 마리당 평균 100-150개의 알을 6-7월 중 산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장흥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자원량 조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에서는 방류된 낙지를 지속 관찰해 추후 자원조성에 필요한 자료

로 적극 활용하고 낙지 방류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이번 행사는 장흥군 빨낙지의 개체수 증가·생산, 득량만 청정해역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바다환경 보호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